

해학으로 어우러진 생활과 예술

월북화가 金瑢俊의 수필세계

朴演求

수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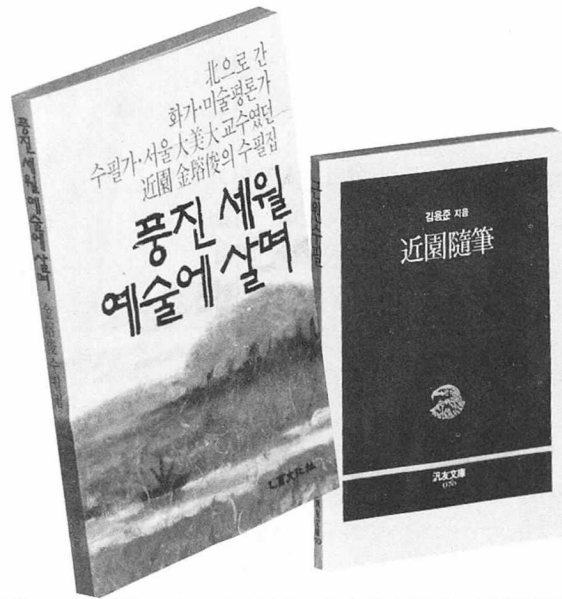
近園 金瑢俊을 알고 있기는 꽤 오래 전이다. 내가 수필을 공부하고 수필을 쓰는 사람인 줄을 안 문단의 한 선배가 김용준의 수필집을 소개해주었다. 수필다운 수필을 알고 싶거든 「近園隨筆」를 읽으라고 해서 어렵게 어렵게 그 책을 손에 넣어 읽게 되었다. 종이가 누렇게 퇴색된데다 인쇄가 좋지 않아 읽는데 좀 고역이긴 했지만, 도무지 粉飾함이 없이 자연스럽게 표현한 문장에서 먼저 호감을 가졌다. 그러나, 이 진솔한 문장은 보통의 문장력으로는 어렵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쉽게 범접치 못할 품격을 느꼈으며, 생활과 예술체험에서 얻어진 소재들을 풍자와 해학으로 표현한 수필들이 읽으면 읽을수록 끌려드는 매력이 있었다.

수필문학의 고전 近園隨筆

나는 어쩌다 그의 수필을 이야기하게 될 때는 으레 「두꺼비 연적을 산 이야기」라는 수필을 들어 즐겨 이야기했다.

근원이 하루는 골동집에서 두꺼비 모양의 연적 하나를 샀다. 그는 이 연적을 집에 가지고 들어갔다. 그러자 그의 아내는 “쌀 한되 살 돈이 없는 판에 그놈의 두꺼비가 우리를 먹여 살리느냐”라고 바가지질을 굶었다. 그때 근원은 되려 화를 벌컥 내면서 소리쳤다. “두꺼비 산 돈은 이놈의 두꺼비가 갚아 줄 테니 걱정 말라.” 그러면서 그는 “그러한 연유로 나는 이 잡문을 또 쓰게 된 것이다. 잡꼬대 같은 이 한편의 글값이 행여 두꺼비 값이 될는지 모르겠으나 내 책상머리에 두꺼비 너를 두고 이 글을 쓸 때 내가 감정을 가진 물건이라면 필시 너도 슬퍼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 풍자와 해학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으며, 눈물이 날만큼 가슴에 와 닿는 감동을 받았다.

그의 수필을 한 편 더 이야기하려면 「답답할손 X선생」을 들어 이야기하고 싶다. X선생은 철학을 공부하는 이면서도 매화를 끔찍히 사랑하였다. 어느날 친구와 함께 X선생택을 방문했다가 매화에다 두루뭉수리처럼 웬 이불 한 채를 둘둘 감아붙인 것을 발견하고 噴飯할 지경으로 터져 나오는 웃음을 억지로 참으면서, “도대체 매화에다 저게 웬일이요?” 하고 물었더니 X선생은 의연 무표정한 얼굴로, “엇그제 어느 친구가 이불 한 채를 보냈습니다. 덕분에 어제 같은 추위에도 매화를 따뜻하게 해 줄 수 있었소”하면서 연신 추위



서 30초가 멀다 하고 두 손을 호호 불고 있더라는 것이다. 이 수필에서의 X선생은 바로 근원을 投射한 인물이 아닌가 싶을만큼 흡사한 데가 있다.

「近園隨筆」의 초판본이 출간되기는 1948년으로 40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지금 읽어보아도 전혀 낡은 글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진정한 문학작품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한다고 볼 때 「近園隨筆」은 현대 수필문학의 한 古典으로 남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고아한 품격 돋보여

빛나는 수필가의 한 사람인 尹五榮도 그의 편저인 「韓國隨筆精選」(1976년)의 머리말에서 김용준의 位相을 밝혀 놓았다. 그는 수필문학의 발달과정을 다섯 단계로 보았는데, 그 가운데서 제5기를 이른바 수필문학의 開眼期로 분류해놓았다. 의식적으로 수필문학을 표방하고 나선 문인들의 활약이 눈부셨는데, 이때의 대표적인 작가가 김진섭, 이양하, 이태준, 김용준, 노천명이었다고 정리하였다. 이처럼 김용준의 위상을 밝혀놓고도 정작 김용준의 작품을 예의 편저에 한 편도 수록하지 않은 사실에서 분단시대의 비극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지난 7월의 남북·월북 작가의 작품들이 대폭적으로 해금되어 「近園隨筆」 또한 자유스럽게 읽고 음미할 수 있게 된 것과, 수필문학사의 맥락을 제대로 이어 놓을 수 있게 된 것이 여간 다행스럽지 않다.

지금까지는 본격적인 현대 수필문학의 선구적인 계기가 된 작품으로 1947년에 출간한

김진섭의 「인생예찬」과 이양하의 「이양하 수필집」을 들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김용준의 「近園隨筆」까지를 함께 말해야 옳다고 본다. 사실은 김용준이 화가였기에 해금문인 명단에는 들어 있지 않았고, 지난 10월에 해금 조치된 미술인 명단에 들어 있을 뿐이다.

확실하게 해금이 되자 「近園隨筆」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책 다음으로 발표한 수필까지도 햇빛을 보게 되었다.

「풍진 세월 예술에 살며」에 추가 수록된 작품 중 「털보」라는 수필을 보면, 그가

끔찍한 보배로 여기던 수염을 길 거러서 두어번 코보(미군 병사)에게 놀림감 노릇을 당하고 나서는 분기에 싹 깎아버렸다는 대문이 있다. 그 일로 그가 反美감정을 품었으리라 보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런 행동에서도 그의 강직한 성격의 일면을 엿 볼 수가 있다.

김용준은 한때 우리나라 유일의 문학지인 「文章」(1939년 창간)에다 吉鏞燮, 鄭玄雄 등 당대의 이름난 화가들과 더불어 표지화를 그린 화가이며 서울대 교수였다. 그러나, 그의 그러한 경력보다는 「近園隨筆」의 저자였다는 사실이 중요할 따름이다. 그의 수필은 수필을 공부하고 쓰는 나의 자존심을 충족시켜 주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풍진세월 살다간 만능예술가 金瑢俊 수필집 두곳에서 동시 출간

명수필을 갈망해온 우리 독자들에게 다시 없는 선물이 될 近園 金瑢俊의 수필집 2권이 동시에 출간되었다. 48년 출간된 바 있는 에세이집 「近園隨筆」이 범우사에서 ‘에세이문고’ 중의 하나로 다시 출간된 한편, 원래 이 책을 펴낸 바 있는 을유문화사에서 당시 수록되지 않은 작품까지 망라하여 「풍진 세월 예술에 살며」라는 제목으로 펴낸 것이다.

거무스레한 턱수염에 돛수 높은 안경을 쓴 모습으로 유명했던 그는 일제 말기에서 해방공간 사이의 대표적 화가이자 미술평론가, 수필가로 활약했다. 원래 일본 동경미술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했으나 귀국 후 동양화로 길을 바꿨으며, 해방 후 서울대학교 예술대학에서 후진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朝鮮美術史」를 저술하기도 했다.

“끈적끈적한 유채와 모지라진 브러시로 형질 쪽에 칠을 붙이는 마치 토역꾼이나 하는 작업같은 유화만이 그림인 줄 아는” 당시 화단에서 그는 “水墨畫의 까무라져가는 운명을 생각할 때마다 전율을 금할 길이 없다”고 한탄했던 강한 민족애와 주체성의 소유

이기도 했다. 그의 월북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지만, 그의 이러한 강인한 정신이 끝내 그를 월북이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7·19해금조치와 함께 다시금 독자의 손으로 돌아온 근원의 수필은 작가 崔玄植의 표현대로 “요새 발표되는 수필에 비하면 하늘을 나는 학과 같은” 품격과 미려한 문장을 보여주고 있다. 30년대 소설문학의 거장인 李泰俊이나 탁월한 시인 鄭芝溶과 막역한 사이였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화가이기 이전에 해방전후의 문단에서 정상급 수준의 수필가라는 사실을 이번 발간된 수필집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 수묵 빛깔로 퇴색해버린 장지 도배에 스며드는 墨痕처럼 어렵듯이 살아 나타나는 완자창 위로 어찌면 그렇게도 소담스런 희멸건 꽃송이들이 소복한 부인네처럼 그렇게도 고요하게 필 수가 있습니까”라는 「매화」의 한구절은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문사의 운치있는 삶이 한데 어우러진 한쪽의 그림이 아닐 수 없다.

—남진우 기자